전남미용고 사이클 나윤서, 아시아주니어선수권 3관왕

경륜·스프린트·단체추발 금메달
500m 독주·단체스프린트 은메달
한국 여자 사이클의 미래로 성장

우리나라 사이클 여자부 대표 유망주로 꼽히는 나윤서(전남미용고)가 2023 트랙사이클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 3관왕을 달성했다.

20일 대한자전거연맹에 따르면 나윤서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경륜과 스프린트에서 1위를 차지한 나윤서는 단체추발에서 권나혜(경북체고)·김도예(인천체고)·구민지(대구체고)·박경령(영주고)과 금메달을 합작했다.

나윤서는 김도경, 구민지, 김도예와 함께 나선 단체스프린트에서는 아쉽게 2위에 그쳤다. 500m 독주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

그는 지난해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 그린돔경기장에서 열린 '2022 한·일 친선 학생사이클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내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나윤서는 일찍부터 두각을 드러냈다. 빛가람중 재학시절 2020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권나혜도 박경령과 호흡을 맞춘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 메디슨에서 금메달을 수확해 2관왕을 달성했다. 권나혜는 옴니엄과 스크래치에서 은메달 2개도 챙겼다.

박경령도 포인트 종목에 출전해 은메달을 땄고, 김도예도 경륜에서 3위를 차지해 동메달을 수확했다.

주니어 남자부에서는 박준선(영주제일고)이 스프린트, 한상형(부산체고)이 경륜에서 은메달을 딴 게 최고 성적이다. 박준선은 1㎞ 독주는 3위로 마쳤고, 조정우(동대전고)도 포인트에서 동메달을 땄다.

구성관(목천고)·임종원(양양고)이 호흡을 맞춘 메디슨, 구성관·임종원·조정우·이진구(경북체고)·신동일(금성고)이 출전한 단체추발, 박준선·한상형·정석우(동대전고)가 나선 단체스프린트에서도 동메달이 나왔다.

같은 기간 열린 성인부에서는 여자 개인추발에 출전한 이주미(국민체육진흥공단)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주미는 나아름(삼양사)과 호흡을 맞춘 메디슨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

이주미, 나아름은 신지은(대구광역시청)·강현경(국민체육진흥공단)과 출전한 단체추발에서도 동메달을 땄다.

황현서(대구광역시청)·이혜진(서울특별시청)·조선영(상주시청)도 단체스프린트에 출전, 3위로 경주를 마쳤다.

성인 남자부에서는 박상훈(의정부시청)이 옴니엄, 최우림(울산광역시청)이 1㎞ 독주에서 3위를 차지해 시상대에 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단체추발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나윤서(가운데)와 여자부 주니어 선수들. 〈대한자전거연맹 제공〉

내가 먼저 찌른다 하태규(왼쪽)가 19일(현지시각) 중국 장쑤성 우시에서 열린 2023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남자 플뢰레 결승전에서 모쯔웨이(중국)와 경기하고 있다. 하태규가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광주대 농구, 전국체전 광주시 대표로 출전한다

여자대학부 선발전 광주여대 완파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농구부〈사진〉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광주시 대표로 출전한다.

광주대 농구부는 지난 19일 광주대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광주시 여자대학부 대표 선발 평가전에서 광주여대를 112-50으로 완파했다.

양유정은 팀 내 최다인 28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고, 조우(22득점 12도움)와 박새별(18득점 12도움), 정채련(11리바운드 10도움)이 나란히 더블더블을 기록하는 고른 활약을 펼쳤다.

광주대 농구부는 이날 승리로 오는 10월 목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출전한다.

광주대는 지난 제103회 대회 동메달을 따냈다.

국선경 광주대 농구부 감독은 "전국체전에 맞춰 최고 컨디션으로 경기하도록 조직력을 끌어올리고 아쉬웠던 외곽슛을 집중 보완해 대학과 광주의 명예를 드높이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 15년만에 현역 복귀

몽골 그랜드슬램 유도대회 출전

2004년 아테네올림픽 유도 남자 73㎏급 금메달리스트인 이원희(41) 용인대 교수가 현역 선수로 복귀한다.

이원희 교수는 23일부터 25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국제유도연맹(IJF) 2023 울란바토르 그랜드슬램 남자 73㎏급에 출전한다.

이 교수가 현역 선수로 출전하는 건 2008년 5월 베이징올림픽 선발전에서 왕기춘에게 패해 은퇴를 선언한 뒤 15년 만이다.

이원희 교수는 2003년 세계선수권대회와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유도 선수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유도계의 전설이다.

은퇴 후에는 해설위원을 거쳐 2011년부터 모교인 용인대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이 교수가 현역 복귀를 결심한 건 2021년 여름의 일이다.

그는 "위기를 엮고 있는 한국 유도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나 자신의 삶에도 동기 부여를 하고 싶었다"며 현역 복귀를 선언했다.

이 교수는 현재 몸 상태에 관해 "나쁘진 않지만, 나이 때문인지 체중 감량이 어렵더라"라며 "과거엔 3~4㎏ 정도를 하루 이틀에 뺀 뒤 공식 계체 후 다시 몸무게를 회복해 정상 컨디션으로 대회를 치르곤 했는데, 지금은 회복 속도가 느리다"고 말했다.

돌아온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왼쪽) /연합뉴스

그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7~8㎏ 정도를 감량했으며 지금도 2~3㎏ 정도를 더 빼야 한다"고 덧붙였다.

힘든 환경이지만 목표는 명확하다. 이 교수는 "난 어느 대회든 우승한다는 생각으로 참가했다"며 "이번 대회에서도 꼭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의 최종 목표는 2024 파리올림픽 우승이다. 그는 "파리 올림픽을 보고 현역 복귀를 결심한 것"이라며 "쉽지 않겠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미스터 매직' 세이기너 데뷔전 '마법같은 우승'

프로당구 PBA 새로운 기록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3쿠션과 예술구 무대를 누볐던 '미스터 매직' 세미 세이기너(튀르키예·휴온스)가 프로당구 PBA 데뷔전부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세이기너는 19일 밤 경주 블루원리조트에서 열린 2023-2024 경주 블루원리조트 PBA-LPBA 챔피언십 이상대와 PBA 결승전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뽐내며 세트 점수 4-0(15-5 15-0 15-12 15-5)으로 이기고 우승 상금 1억원을 거머쥐었다.

2019년 출범한 PBA에서 데뷔전부터 우승한 선수는 세이기너가 최초다.

세이기너는 찍어치기와 뒤로 끌어치기 등 고난도의 샷을 자유자재로 실전에서 구사한다고 해서 '미스터 매직'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국내외 최고 수준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PBA에 데뷔했을 때 적응기가 필요한 것과는 달리, 세이기너는 곧바로 우승컵을 차지해 돌풍을 예고했다.

데뷔전인 이번 대회 128강전부터 6연승을 달려 결승에 오른 세이기너는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무대에서도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1세트와 2세트를 압도적으로 따낸 세이기너는 3세트에 이상대의 저항에 10-12까지 뒤처졌지만, 곧바로 3이닝 만에 5점을 뽑아 승패를 완전히 기울였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 4세트에서도 점수를 쓸어담으며 PBA 역대 결승전 네 번째 세트 점수 4-0의 '셧아웃'을 완성했다.

세이기너는 "정말 행복하다. 이 순간이 내 당구 커리어에서 행복한 순간 중 하나일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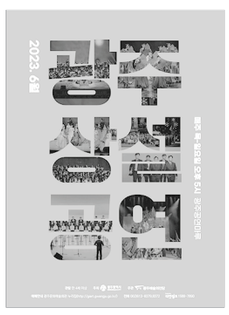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범죄도시3
2관	플래시
3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인어공주
4관	엘리멘탈
5관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6관	범죄도시3
9관	엘리멘탈
7관 씨네커플	범죄도시3
8관 씨네커플	범죄도시3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6월)
일시 : 2023-06-01(목) ~ 2023-06-30(금)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희망아트페스티벌 :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일시 : 2023-06-15(목) ~ 2023-07-09(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